



미주장신 학위수여식이 가나안장로교회에서 거행됐다.

“종교개혁 기억하며 치열하게 사역하라”

미주장신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 거행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제37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6월 3일 가나안장로교회에서 거행했다.

1부 감사예배는 학생처장 박충기 목사의 인도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장 강신형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LA노회장 강준수 목사가 마태복음 13장 31-32절을 봉독했다.

김동영 학우가 특송을 부른 후, 전 총장인 서정운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가나안교회 담임 이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2부 학위수여식이 시작됐다.

교무처장 구경모 박사가 학사보고를 하고 총장 이상명 박사가 학위를 수여했다. 또 노진길 전 총회장이 노영주 씨에게 총회장상을, 유영기 이사장이 이정희 씨에게 이사장상을, 이상명 총장이 이오숙, 정성환 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했다. 강신권 동문회장은 노영주, 김현휘, 이오숙 씨에게 동문회장상을 수여

했다. 이상명 총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졸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쳐야 하는 수많은 통과리데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졸업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변화이고 개혁”이라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졸업이 아니라 진정한 경주자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세계 곳곳에서 무너진 복음의 터전들을 본다.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늘 기억하면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역해 나가시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 속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할 때도 많았고, 슬한 좌절과 실패도 경험했다. 저는 승리를 통해 배운 것보다는 슬한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이 훨씬 많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의 가장 못난 바

보가 되었을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도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학교는 1977년 남가주장로회신학교란 이름으로 개교해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을 빌려 사용했다. 초대 학장 김성락 박사 이후, 김계용 목사, 박희민 목사, 서정운 목사, 김인수 목사 등이 총장을 지냈다. 2008년 산타페 스프링스의 현 건물로 이전하며 교명을 미주장신으로 바꾸었다. 2012년 이상명 박사가 제6대 총장에 취임한 이후, 2013년 원격교육 과정을 개시하고 2014년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을 개원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ABHE 정회원 인준에 이어 2016년 ATS에서도 정회원 후보 단계에 올랐다.

개교 이래 73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신학 학사가 6명, 목회학 석사가 16명 졸업했다.

이민교회 두 거목, 하늘나라로 세리토스 황보연준 목사, 벨엘 변영익 목사

세리토스 장로교회 황보연준 원로 목사가(87)가 지난 1일 오후 4시경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고려신학대학교



故 황보연준 목사



故 변영익 목사

LA 한인타운에 벨엘장로교회를 개척해 36년간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2013년 6월 은퇴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20여년간 목회하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왔고 1977년 세리토스장로교회를 개척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창립 멤버이며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5년 은퇴한 후에도 캄보디아 등 세계 선교에 앞장섰다. <빛진 자가 할 일>이란 저서를 남겼다.

변영익 목사(72)도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간암 말기였던 그는 UCLA 병원에서 소천했다. 그는 1977년 11월

을 지냈으며 세계문화교류원을 설립해 조선족 어린이 교육선교에 20년 이상 투신했다.

고인은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십여 년간 모교에서 일하다 도미해 이민목회를 시작했으며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거듭나야 아는 비밀(사도행전 강해), 사랑으로 이루는 율법(로마서 강해), 그날에 춤을 추는 자(이사야 강해) 등의 책도 저술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뮤지컬의 한 장면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성황리에

매년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가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아래 성대한 공연을 마쳤다. 은혜한인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며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공연에 수천명의 관

객이 관람했으며 브로드웨이 수준의 무대장치에 더해 장르를 넘나드는 30여곡의 자작곡, 200여 명이 가까운 배우와 스태프들이 뮤지컬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2면에 계속)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이터널 유류차 전문점 □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제2회 청소년연합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모집기간 1차 - 6월 18일(주일)까지 / 2차 -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및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DISCOVER IN CHRIST



이번 행사에 참석한 박성규 목사와 김인식 목사

이방인 · 유대인 하나되어 대부흥과 재림 준비

〈박성규 목사 기고〉 살롬 예루살렘 축제를 다녀 와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열린 2017 살롬 예루살렘 축제에 참석한 박성규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주님 세운교회 담임)가 본지에 기고한 글을 게재한다.

2017년 5월 28일(주일)부터 6월 2일(금) 오전까지 진행된 2017 살롬 예루살렘 축제는 2013년부터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KCSJ(Korean Christian Shalom Jerusalem)라는 기독교 단체인데, 이번 행사를 위해 미국과 한국과 대만, 몽골, 러시아에서 한인들 봉사자들과 공연팀들 500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다. 이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나 놀랐다.

마태복음 24:14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공산권과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시대적 사명을 한인들에게 맡기셨다고 믿는다. 로마서 10:19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시가게 하는 한 백성을 들어 이스라엘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번 살롬 예루살렘 축제를 통해 에스클론 공연에서 1,000명의 유대인이 몰려왔고 예루살렘 공연에는 3,000명, 그리고 하이파 공연에서는 2,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이 행사를 뉴욕에서 진행했고 매년 1,500명~2,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였다. 2017년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을 맞이하며 1967년 6일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지 50년째가 되는 희년의 해이고 또한 오순절이기도 한 5월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가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오순절에 통곡의 벽에는 유대인들이 발디딜 틈없이 모여들어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어 달라고 간구한다.

KCSJ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요엘 2:28과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로마서 9장-11장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복(알리아)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이다.

우리는 시편 122: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와 이사야 40:1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지난 2천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받아들이며 세계적인 대부흥의 주역이 되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부흥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 역사상 어느 민족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을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반기독교 단체인 야드레아킴이라는 정통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런 대형집회를 당당하게 열었던 민족은 그동안 없었다. 이는 분명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3

시간 공연을 진행하면서 한국전통 민속인 부채춤과 각국의 전통 결혼 의상 전시, 그리고 북, 장구, 탈춤 등을 포함한 사물놀이와 태권도 선교팀의 파워풀한 무술 시범을 하면서 공연이 절정을 향할 때, 뭉치 공연을 뮤지컬로 펼쳐가면서 3,000명의 관중들을 박수와 감탄, 눈물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하였다.

이방어인 룩과 유대인 보아스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스라엘의 다윗왕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메시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공연의 주제로 흐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유대 민족을 학살한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들의 행위를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선언문 낭독’에서 모두들 감격하며 마지막엔 서로 열싸안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는 감동으로 공연은 끝났다.

에스클론 공연에서는 KCSJ 미주 대표 김인식 목사가, 예루살렘 공연에서는 송만석 장로가, 하이파 공연에서는 본인 박성규 목사가 각각 회개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대표 국회의원과 랍비에게 전달하였다.

공연은 주로 저녁에 진행되었고 낮에는 이스라엘 빈민층들에게 구제하는 공활사역과 나무심기, 홀로코스트 기념관 방문과 감람산 교회에서의 뜨거운 오순절 기도회 등으로 실험없이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모든 봉사자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누가복음 21:24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쓰임 받게 된 것을 한없는 축복으로 여기며 주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미나에서 강의할 로렌 권 카운슬러와 안현미 카운슬러

자녀와의 대화 및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인가정상담소-동양선교교회 공동주최

한인가정상담소와 동양선교교회 공동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준비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오는 6월 9일 금요일과 11일 주일, 두 번에 걸쳐 열리는 자녀교육 세미나는 평소 한인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정했다. 강의는 한인가정상담소 전문 카운슬러가 맡으며, 세미나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다.

첫 번째 세미나는 ‘부모의 분노 조절과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을 주제로 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다. 한인가정상담소 안현미 카운슬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양육과정에서의 분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나는 어떤 부모이고 아이는 어떠한 자녀인지 돌아보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법도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세미나는 ‘우리 아이 성교육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11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역시 동양선교교회에서 이어진다. 한인가정상담소 로렌 권 카운슬러

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적 성장과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 대처 방법 등을 다룬다.

참석자들은 성교육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유아기와 학령기, 사춘기로 나뉘는 자녀들의 성적 발달 단계도 이해할 수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위험신호나 외설물을 접하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동양선교교회측은 2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무료 차일드케어 제공한다.

한인가정상담소 김동희 홍보팀장은 “동양선교교회 교육부와 자녀교육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세미나를 커뮤니티에 오픈, 한인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며 “평소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노 조절이나 대화법, 성교육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인 만큼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다가올 여름방학은 자녀들과 보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 예약은 한인가정상담소 전화(213-235-4848)나 이메일(dkim@kfamla.org)로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전파되길 소원한다”

〈A1면으로부터〉이 교회 한기홍 목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신앙인을 굳건히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면서 “이번 공연을 통해 구원의 은총과 죄사함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의 총감독이면서 극본을 쓴 김현철 전도사는 “단지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길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전했다.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창조문화선교단은 은혜한인교회와 16개 교회의 성도들이 연합한 문화선교단체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
|----------------|---|
| 학 위 과 정 |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
| 특 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학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

| | |
|------------------------------|--|
| 강의 일정 |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
| D.Miss | 최근의 세계 선교전략, 통일 선교신학 논문작성법 |
| 여름특강 | Career & ministry development seminar (진로 및 사역개발 세미나)/ Contemporary Trends in World Mission(세계선교동향) 헬라어 |
| LA Extension 공개 여름 특강 | Counseling & Education for youth at risk 위기 청소년 상담과 교육 (7월5,12일)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 (7월19,26일) Church Communication 교회 커뮤니케이션 (8월2,9일) |

2017년도 가을학기 등록 시작: 2017년 7월 1일
가을학기 수업시작: 2017년 8월 28일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GMU가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거행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 및 학위수여식

타민족 학생 포함 35명 학위 받아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가 2017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6월 5일(월) 거행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선교학 박사 2명, 목회학 석사 9명, 기독교교육학 석사 6명, 선교학 석사 2명, 학부생 16명이 졸업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는 타민족 아시아인과 라티

노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이 학교는 영어 트랙이 있어 영어로만 수업을 듣고도 졸업 학점까지 이수 가능한 덕분이었다.

졸업예배는 김현완 교무처장의 사회로 최규남 총장이 “나는 누구인가(마5:3-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학위 수여와 우수 학생에 대

한 시상에서 이어 김병학 교수가 축사 및 권면을 전했다. 이번 예배에서는 졸업생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순서도 있었으며 다함께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쳤다. 축도는 강서기 목사가 했다.

권 쉐비 기자



중부교협 주최로 교회 대항 족구대회가 열렸다.

중부교협 교회 대항 족구대회 개최해

지난 6월 3일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가 교회 대항 친선 족구대회를 존F케네디고등학교 테니스장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중부지역 6개 교회로부터 8개 팀이 참가했다. 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교협회장 최국현 목사가 기도하고 남가주벤엘교회 오병의 목사가 “체력은 영력이다”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비전리그 1등에 세리토스선교교회, 2등에 OC평신도기독교연합회가 올랐고 드림리그 1등은 남가주사랑의교회, 2등은 중부교협 임원팀이 차지했다. 최국현 목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육체에서 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 건강한 삶을 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웃으며, 음식을 나누며, 재밌게 운동을 하다 보니 서로가 친해졌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중부교협은 올 한해 사역 목표를 “연합과 소통”으로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8월 13일에는 광복절 찬양 축제를 열어 1세와 2세가 소통하며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8월 중 영성 세미나와 9월 중 목회자 성지순례도 준비 중이다.



엄마의마음장학회가 제3회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엄마의 마음 담은 장학금 신청하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엄마의마음장학회가 제3회 후원의 밤을 지난 3일 열방선교교회(부에나팍)에서 개최했다. 20여 명의 후원자가 이 자리에 함께해 예배 드렸으며 2016년 장학생들의 감사편지를 읽으며 보람과 기쁨을 나누었다.

엄마의마음장학회는 오는 2017년 장학생을 6월 23일까지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장학금 신청서, 재정확인서, 에세이, 추

천서 등을 <http://blog.daum.net/head1966/10324513>에서 다운받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대학,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풀타임 학생이 지원 가능하다. 장학금에는 홀부모 장학금, 신학생 장학금, 미자립교회 목회자·선교사 자녀 장학금, 일반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 수혜자는 감사의 편지를 반드시 장학회 앞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의) 714-402-6482

남가주 교회를

VBS 일정

나성한인교회가 오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름성경학교(VBS)를 개최한다. 삼일동안 예배와 찬양대회, 성경공부, 축제,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둘째날 저녁 유초등부는 교회에서 슬림오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최근 많은 한인교회들이 VBS를 저녁 시간대 위주로 개최하는데, 이 교회는 첫날 오후부터 마지막날 오전까지 계속 VBS를 한다.

무리에타한인장로교회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각각 VBS를 연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행사를 연다. 은혜한인교회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는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 베델한인교회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초등부 여름 캠프를 열 예정이다.

GMI 유스 오케스트라 여름 콘서트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GMI 유스 오케스트라가 오는 6월 17일(토)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여름 콘서트를 연다.

이 콘서트에서는 베토벤 심포니 1번과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5번을 연주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박명숙 씨가 협연하며 지휘는 폴러튼 칼리지 정승재 교수가

한다. 입장료는 5달러로, 티켓은 콘서트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콘서트 후 다과가 제공된다.

GMI 유스 오케스트라는 초중고 등학생들로 구성된 크리스천 오케스트라로 단원을 상시 모집한다. 문의) 714-318-2085

gmiorchestra@gmail.com

남가주벤엘교회 전용대 목사 간증집회



전용대 목사

전 목사는 젊은 시절 장래가 촉망되는 트로트 가수였지만, 목발을 짚게 되면서 자살을 수 차례 시도했

다. 그러나 절망을 딛고 일어서 목회자가 되며 한국 1세대 복음성가 사역자로 활동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세상에서 방향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주여! 이 죄인의> 등의 곡이 있다. 집회는 6월 10일(토) 새벽 6시에 남가주벤엘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한편, 남가주벤엘교회는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윤형식 목사(동인교회)를 강사로 일일 부흥회를 연다.

이인규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체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밤에 남의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 천하의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mailto:usajyk@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Since 1999

Irvine
La Canalia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 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무료 앱 다운로드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기감 오렌지지방 감리사 이·취임 예배

배순창 목사 은퇴 찬하식도 함께 거행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1>

교회의 생명을 회복하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이 세상 모든 교회가 한결 같이 꿈꿔야 할 예배다. 요한계시록 5장의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스런 예배에 온 세상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자, 찬송이 없는 곳에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의 금향로를 온 열방의 민족들이 다 쌓아 모두가 존귀하신 하나님께 얹드려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는 선교를 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온 세계가 인정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다. 그 자체가 생명이다. 성도의 수가 문제가 아니다. 재정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여 세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내는 전장의 기지이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살아 존재하는 악한 사탄 마귀다. 사탄도 영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엡6:12).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것을 성령이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다. 성령충만함을 얻어야 전신갑주의 능력이 주어진다.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피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이다. 쉽없이 다가오는 미혹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것들을 이겨야 한다. 타협하여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필자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선교라 본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사명, 선교의 목표, 선교의 방법, 선교의 열매, 선교의 비전 등을 전하며 훈련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열방을 품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행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열방을 향하기를 기도한다.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교회에서 대학생 단기선교사 파송 기도 모습



6월 4일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며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는 신임 감리사 이길준 목사(왼쪽)와 이임하는 직전 감리사 임영호 목사(오른쪽)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오렌지지방 감리사 이·취임 및 배순창 목사 은퇴 찬하 감사예배가 6월 4일(주일) 오후 5시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905 Euclid St. Fullerton, CA92833) 예배실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먼저 드려진 배순창 목사(팔로스버디스교회) 은퇴 찬하 감사예배는 이길준 감리사의 사회로, 이상호 목사(교육부 총무)의 기도, 황준호 장로(사회평신도부 총무)의 성경봉독, 오렌지지방 목회자 부부 찬양단의 "해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의 특별 찬양, 최충수 원로목사의 설교, 팔로스버디스교회의 김제운 장로의 약력 소개, 이길준 감리사의 선언, 배순창 목사의 감사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설교에서 최충수 목사는 빌립보서 1장 27-28절을 본문으로 "천국 시민의 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45년을 목회와 선교에 헌신하다가 교회 사역에서 은퇴하고 멕시코 선교사로 나선 팔로스버디스교회의 배순창 목사는 1947년 1월 22일 생으로 성경신학대학을 졸업, 1971년 7월 이천지방 광주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 1976년 5월 경기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1992년 9월 미국으로 이민, 은퇴하기까지 팔로스버디스교회에서 24년을 시무했으며, 2003년-4년 미서남부지방회 감리사, 2011-12년 LA 서지방회 감리사로 사역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멕시코 등지에 41개 성전 건축에 헌신했으며, 케냐, 캄보디아, 말라위 등의 선교에 동참했으며, 2016년 6월에는 필란 지역에 5에이커의 땅을 구매, 필란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길준 신임 감리사는 배 목사의 은퇴를 공식 선언하고 은퇴 찬하패를 증정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 선교사역에 헌신할 배 목사를 오렌지지방 멕시코 선교사로 공식 임명했음을 공포했다.

배순창 목사는 감사인사를 통해서 "절약하면서 선교에 함께 헌신해준 가족들과 동역자들인 선후배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방회 중에서 은퇴 찬하와 감리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함께 드리는 곳은 오렌지지방회가 처음으로, 하나되어 화합하고 있는 오렌지지방회라

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올해는 나의 선교역사 중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라며, 돌아보면 자신은 "누가복음 17장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명령 받은 대로 행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다.

이어서 계속된 감리사 이·취임 감사예배는 배경태 목사(선교부 총무)의 사회로 직전 감리사인 임영호 목사(웁관교회)의 이임사와 지방회, 감리사 스톤, 교리와 장정, 의사봉 등 전달 및 새로 취임하는 이길준 감리사의 취임사, 민병열 원로 목사(필란교회)의 격려사가 있은 후, 조한영 목사(큰빛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취임사에서 이길준 감리사(한길교회 담임)는 "젊은 감리사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겠다. 오렌지지방 10여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도움을 요청한다"며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은퇴 찬하 및 이·취임 감사예배에는 지방회 임원들, 가족들,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함께 기뻐했다.

한편 미주자치연회 오렌지지방회 섬기는 사역자들은 실행부 대표에 조한영 목사, 임영호 목사, 김제운 장로, 최인영 장로이며, 지방 임원으로는 감리사 이길준 목사, 선교부 총무 배경태 목사, 교육부 총무 이상호 목사, 서기 장종일 전도사, 회계 김효영 목사, 사회평신도부 황준호 장로이며, 감사는 이종철 목사, 김은희 장로이다.



45년의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배순창 목사 부부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안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i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LEE'S MORTUARY

당신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미전국 지사망

- 앨레이, 오렌지카운티, 시카고, 아틀란타 지역 지사망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랜경험의 듬직함

- 1966년 부터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완벽한 장례식을 도와 드립니다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인력한 분위기

LEE'S MORTUARY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의사 회장 이시용 장로

직원 및 협력업체 모집
직원모집 장례지도사, 장례보훈설계사, 장례영업사원
협력업체모집 비석, 관, 묘지, 꽃, 사진, 주얼리, 각종인쇄

시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틀란타 리창의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하룻 샘 공원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5)

이상한 전쟁 준비- 하룻 샘

하룻 샘으로 가는 길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지라고 알려진 아풀라(Afula)에서 하룻 샘(Ein Harod)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즈르엘 평원을 가로질러 동쪽 요르단 강 쪽을 향하여 사울과 아들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던 길보아 산(삼상31:1-2)을 만나면 길보아 산 서쪽 끝자락에 하룻 샘이 위치하고 있다. 미디안 군사가 진 쳤던 모레 산(Mt. Mo're)도 엘리사의 능력이 입하였던 이즈르엘 평원(왕상18:46)을 사이에 두고 길보아 산 건너편에서 볼 수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던(삼상28:4), 그리고 과부와 엘리사의 만남이 있었던 수넴(Shunem, 왕하4:8-12)도 모레 산 남쪽 기슭에서 만날 수 있다. 사울의 시신이 성벽에 걸렸던 벳산(Beit She'an, 삼상31:10)도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

하룻 샘으로 모인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총 410년 동안 이스라엘 역에서 펼쳐진다.(왕상 6:1) 이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되어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약속된 풍요로운 축복을 상실하게 된 주요한 영역은 종교문제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 행위를 채택하기에 이르러 바알과 아삿, 아세라, 아스다롯 등의 신들을 좇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주전 1169년 가나안의 압제가 20년 간 지속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 침입자 미디안을 격파하기를 원하셨다. 두 번의 구원 약속을 알아보기 위해 청원이 있었고 기적을 맞은 기드온이 우상을 격파하고(삿6:25-32) 군대를 소집하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로부터 32,000명이 하룻 샘가로 모여들었다. 적의 무리는 135,000명이나 되었다.(삿 8:10) 따라서 아군 32,000명이 적은 숫자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하셨다. 기드온이 승리하였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병력을 줄여야 했다.

이상한 전쟁과 하룻 샘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싸울까? 메뚜기 떼처럼 중대한 미디안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긴장되고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상한 전쟁 준비를 시키셨다. 그날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전투할 태세로 물을 마시는 300명만 뽑아낸다. 손으로 움켜잡고 대고 핏을 자에 대하여 풍유법을 동원하여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도 한다. 어떻게 마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뽑으심을 기대하여야 한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겨우 300명으로 135,000명의 미디안 군사와 격돌하게 된 것이다. 이날의 싸움은 무모하고 정신없는 싸움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은 이미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병들만 남은 것이다. 어떤 지시가 내려도 이행할 사람들이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300명을 3대로 나누고 항아리에 햇불을 감추고 적진가에 이르르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믿기지 않은 사람이 있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을지 모르지만 이 싸움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적벽대전보다 더 멋진 성공을 거두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적군끼리 서로 죽이는 대혼란을 멀리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룻'이라는 말은 '하랏드' 즉, '두려워 떨다, 걱정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군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권능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수만의 적군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본다. 이 일 후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간 평온한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은 숫자,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이 사건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숫자도 적지만 수많은 아랍국가들의 위협 속에서 오늘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하나님의 숫자를 믿고 살기 때문이다.

자연 공원 하룻 샘

오늘날 이곳은 '에인 하로드'라고 부른다. 히브리어로 '에인'이라는 말이 있는 곳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인 게디(Ein Gadi)'는 산양의 샘이라는 뜻이며 염해(사해)에도 '에인 보켓'이라는 휴양도시가 있다. 성경에 '에인'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아! 이곳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길보아 산 서쪽 기슭인 이곳은 천연 샘물이다.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와 개울을 이루고 흐르는 곳이다. 광장히 맑은 물이 많이 흘러나와 이즈르엘 평원을 적시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군사들이 진을 치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였다.

주후 1260년 이집트 술탄이 다스릴 때 몽고의 군대가 이곳까지 침범했던 기록이 있다. 1921년 이즈르엘 평원 쪽에 키브츠 에인 하로드가 생긴다. 여호수아 한기와 그의 아내 율가에 의해 하룻 샘 주변이 개발되고 1930년 영국 통치 시절에는 영국 군인인 찰스 에드워드 부대가 주둔하기도 하였다. 초기 시온주의자들로 구성된 팔마흐 자위대 캠프가 있어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곳이다. 그 옛날 기드온 선배를 본받아 현대의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의 수로 수백만의 아랍을 패퇴시키고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국립 자연 공원으로 잘 단장되어 있어서 여름에 가족 수련장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길보아 산 서쪽 기슭에서 샘솟는 하룻 샘을 배경으로 인공 수영장과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포근하고 평온하게 보인다. 하룻 샘은 시간당 360mm의 물이 솟구쳐 동으로 흘러 요단강으로 오늘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다.

(계속)

교회 소식

LA 지역 교회 목록. 각 교회별로 담임목사, 주일예배 시간, 주소, 연락처를 소개하고 목사님의 사진을 첨부했다. 교회 이름에는 'LA사랑의교회', 'LA온하늘교회', 'LA세계선교회' 등이 포함된다.



저스틴 비버 ©트위터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이긴다”

영 테러 희생자 추모 공연한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가 영국 맨체스터 공연 중 “하나님의 사랑이 테러의 공포를 이긴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저스틴 비버는 지난 달 발생한 맨체스터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원 러브 맨체스터’ 공연의 무대에 올랐다.

비버는 자신의 히트곡인 ‘러브 유어셀프’ (Love Yourself)를 부른 후, 관중들과 함께 ‘러브’를 외쳤다.

그는 “희망이 가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랑이 가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가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도 그러하다면 손을 들라. 하나님은 어두움의 한가운데서도 선하시며, 악의 한가운데서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중심에 계신다.”

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이곳에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순간에는 삶을 잃은 분들을 기뻐하고 싶다. 우리는 당신들을 매우 사랑한다. 당신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서 양손을 들어 추모했다.

비버는 자신의 발라드 곡인 ‘콜드 워터’(Cold Water)를 잔잔하게 부른 후 “사랑으로 악을 이기지”고도 했다.

추가 테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린 이날 공연에는 5만 명의 관중들이 모였으며, 이 가운데 1만 4,000명은 테러가 벌어진 날 밤 콘서트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날 공연으로 약 200만 파운드(약 258만 달러)의 자선 기금이 모였으며, ‘맨체스터 긴급 펀드’(Manchester Emergency Fund)에 전달돼 테러 희생자들을 돕는데 사용된다.

강해진 기자

영국교회 신뢰도, 24개 공공기관 중 17위

영국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영국 NGO단체들을 위한 연구컨설팅 기업인 엔에프시너지(nfpSynergy)가 영국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중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교회는 전체 24개 기관 중 17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000명의 성인들을 상대로 올해 2월 진행됐다. 조사결과, 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영국군이었고, 자선단체가 그 다음 순이었다.

강해진 기자

반면, 정당, 다국적기업, 언론기관은 가장 신뢰도가 낮았다.

교회의 경우, 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9%였다. 교회를 많이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8%, 아주 적게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교회에 대한 신뢰수준은 지난 몇 년 동안 일관된 수치를 보였다. 지난 2009년에도 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와 많이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합한 수치는 33%였다.



스티브 테네스 씨 ©ADF 동영상

동성 커플 ‘과수원 결혼식’ 거부한

미국 농부 시 직판장에서 퇴출

시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미국 미시간 주의 한 농부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의 농산물 직판장에서 쫓겨났다고 다수의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스티브 테네스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이스트랜싱 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테네스는 소송장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나의 과수원에서 결혼식을 열고 싶다고 하기에 이를 거절했다가 농산물 판매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믿는다”는 글도 올렸다.

‘컨트리 밀 팜’(Country Mill Farm)이라는 농장을 운영하는 테네스는 지난 6년 동안 이곳 직판장에서 과일을 비롯한 여러 농산품을 팔아왔지만, 그가 페이스북에 동성애 반대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접한 시 관계자는 이같은 판매를 금지시켰다.

소송장에 따르면, 직판장의 차별금지 정책에 걸려서 판매금지 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해진 기자

이스트랜싱 시는 성명을 통해 “농부가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비롯해 동성커플의 결혼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네스의 법적대리자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그의 종교적 관점은 직판장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시의 행위는 수정헌법 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ADF의 케이트 앤더슨 변호사는 “스티브와 그가 운영하는 농장은 단 한 가지 이유로 공동체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는 그가 시에서 싫어하는 관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네스는 “직판장의 소비자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결혼에 대한 관점은 평등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따라, 인종·종교·문화·LGBT(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상관없이 농장과 직판장을 찾아온 모든 소비자들을 존중하며 품위있게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트힐장로교회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818) 884-2391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최혁 담임목사
 T.(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김철민 장로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앤드류 김 담임목사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김영길 담임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나성교회
 Nasung Church
 정동석 담임목사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민경엽 담임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원준 담임목사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오병익 담임목사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박재만 담임목사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714) 952-0191 / www.socalfg.com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허규암 담임목사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안창훈 담임목사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c.office1@gmail.com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승기 담임목사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이서 담임목사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714)821-9900,9901 / visioncc.org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 (949) 854-4018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949)250-1111 / www.beautiflulch.com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박경호 담임목사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우대권 담임목사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an Presbyterian Church
 김인철 담임목사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714)549-0121 www.myocpc.org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남성수 담임목사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714) 893-1652 / kccrcc.com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최혁 담임목사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657)217-5558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www.sellacare.com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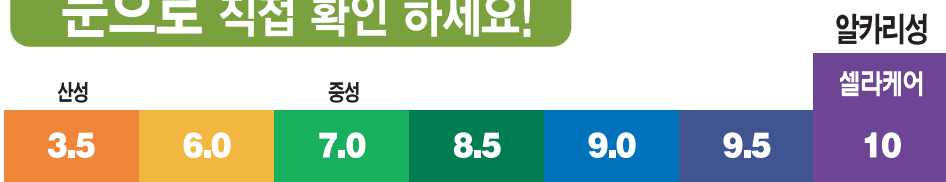
- 혈관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졸중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 | | | | | | | |
|----------------|--------------|--------------------|--------------|-------------------|--------------|---------------------|--------------|
| 본사(LA) | 213,435,9600 | 현대약국 (웨스턴+5가) | 213,480,3322 |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 562,402,6972 | 세크라멘토/아리조나 | 602,332,6492 |
| 다운타운 산페드로 | 213,765,9677 |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 213,739,3030 | 에나하임 | 714,469,5809 |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 847,699,1511 |
| LA내쳐영양센터 | 213,739,8874 |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 323,733,7200 | 얼바인 | 949,330,9009 |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 224,406,0337 |
| LA 다운타운 | 213,798,3333 | 뉴서울호텔 (팔달) | 213,386,5310 | 랜초쿠카몽가 | 909,987,9500 |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 770,457,1717 |
| 국제건강가족동호회 | 213,382,9714 |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 818,637,7708 |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 909,595,4003 | 텍사스 (Nature's Gift) | 972,280,9006 |
| 시온약국 | 213,344,9730 | 밸리 소망 약국 | 818,832,2757 |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 562,402,8859 | 플로리다/NC/SC | 770,457,1717 |
| LA 아드모아약국 | 213,385,2135 | 발보아 약국 | 818,831,2090 | 로렌하이츠 | 626,912,5727 | 씨애틀 (건강마을) | 206,229,5466 |
| LA 한국마켓약국 | 323,464,3925 |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 714,690,0120 |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 626,839,2868 | 하와이 (생약촌) | 808,947,8086 |
| LA 베스트약국 | 213,385,9926 |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 714,228,9212 |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 310,619,7758 | 캐나다 | 604,872,1669 |
|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 213,384,6323 | 가든그로브 만미당영 | 714,333,7866 | | | | |
| LA벌론 마틴약국 | 213,382,9718 |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 714,638,5100 | | | | |
|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 213,388,4100 |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 562,402,0500 | | | | |
|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 213,380,5103 |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 562,402,6970 | | | | |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해동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From left to right: Isaac Six, Mervyn Thomas, Suzanne Scholte, Jeff King) Advocates of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poke at a panel during the first day of The Bridge Conference which took place at Saddleback Church on June 2.

Freedom in North Korea Is 'Not Impossible; It Is Inevitable'

Pastors, legislators, policy experts, activists share strategies and hopes

BY RACHAEL LEE

Several hundred people gathered at Saddleback Church from June 2 to 3 to learn more about a nation known to be one of the most severe violators of human rights and persecutors of Christians: North Korea.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egime, and how activists and Christians could participate in restor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ere among the topics discussed at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s annual conference called The Bridge.

The conference, which was launched in 2016, focuses on the topic of persecution but spotlights different regions each year. In 2016, the conference highlighted persecution in the Middle East.

Though the topics of restor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bringing about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re often considered overwhelming, speakers at The Bridge conveyed a sense of hope that the borders of the nation will soon be open, and that the gospel would penetrate the country.

"If I can ask you to retain one thing from this conference, it's to grasp this simple truth: the fall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not impossible," said Jeff King, the president of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It's inevitable."

"When North Korea falls, it will be very fertile mission ground for the gospel," said Mervyn Thomas, CEO of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placing emphasis on the word "when."

The conference featured speakers from a variety of sectors, including pastors, defectors, legislators, policy experts, and activists.

Notable among them were Francis Chan, author and pastor; Congressman Ed Royce; Joseph Kim, a defector who authored his experiences and was featured in a TED Talk; and Suzanne Scholte, executive director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In late May, a policy day also took place in Washington, D.C. in which Senators Ted Cruz and James Lankford were also featured as speaker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fectors fleeing North Korea, and news that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have been penetrating the country more and more, are among some of the signs that speakers pointed to as evidence of an imminent opening of the reclusive country.

Congressman Royce recalled a conversation he had with a North Korean refugee who told him "people [in North Korea] are watching soap operas" and consuming other content from outside.

"The number one thing they want to do is to watch what's happening in the outside world," Royce said. "They are seeing what is happening and they see that North Korea is not necessarily the best country. The defector is trying to convey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there."

The claim was echoed by defectors who said that they had learned more about the world outside of North Korea through media.

"I saw on TV that the world outside had refrigerators and other things that were so much better than the ones in North Korea," said one defector. "I began to doubt that North Korea was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One defector said she heard the broadcast of Free North Korea Ra-

dio while in North Korea, and that all of the voices she had heard in the broadcast were defectors. Her curiosity about whether that was true, and if so, whether these defectors were doing the program voluntarily or by force, drove her to also flee the country and find out for herself.

Until the borders of North Korea are opened, however, speakers said, human rights violations must be addressed, and legislation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ust continue to be advocated for.

Isaac Six, the advocacy director of the ICC, said world leaders and legislators must focus their discussion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on the issues of human rights. He added that bills have been introduced to enforce just that: HR 2061 and S 1118. If passed, the measures would require that all talks about North Korea must include discussion about its human rights violations, among other requirements.

World leaders must also increase pressure on China to compel it to stop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said Suzanne Scholte.

"What China is doing is illegal, inhumane, and barbaric," she said. "The moment [refugees] cross that border, they fit the definition of an asylum seeker and have protections. Because it is a crime punishable by death to leave the North Korean regime, they are protected by international law."

Meanwhile, the conference also featured representatives from non-profits that engage in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such as Crossing Borders, Liberty in North Korea, and Free North Korea Radio.

Christian Dancers 'Rise Up' to Use Their Talents for Worship

A diverse line-up of almost 20 Christian dance performances were featured at a showcase that took place on May 27 at the Marsee Auditorium, located inside El Camino College.

The annual 'Rise Up' Christian dance showcase saw some 1,100 in attendance this year, the largest turnout that it has seen in its five-year history. It's a significant jump from the turnout of some 500 that the event saw in 2016.

Einston Han, the youth pastor of Kumran United Methodist Church and the main organizer of the event, said that the event has grown in more ways than the simple numbers.

"Physically, it's definitely grown, but on a performance and spiritual level, I think the event elevated tremendously," said Han.

"There seems to be a huge interest among more believers and churches in worshipping God through dancing. I've had a couple of students tell me how they want to join Christian dance teams or how they want their dance team to perform next year," he added.

The event has also seen a growing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is year's line-up featured six teams who were first-timers to the

event, as well as a diverse range in both age and genre.

In fact, the organizers don't have a "set standard" in terms of deciding which performers can be included in the event – just that they are Christian dance teams. The lack of a strict standard, per se, helped to bring in that diversity of performers.

For instance, dance teams such as Seeds of Worship or God's Image generally feature lively body worship styles of dance and are comprised of younger dancers, even as young as elementary school-age. Meanwhile, Sodium Project or V3 Dance are comprised of young adults whose choreographies feature a mixture of hip hop and contemporary dance.

With this platform, Han said he and the other organizers hope to not only bring greater visibility to Christian dancers and the art as a form of worship, but also to make a gospel impact in the dance community.

"I believe this is something that is necessary, and there really isn't anything like it," said Han.

"Right now, dance is growing, and there is a community of dancers that's hungry for the Gospel."



The annual 'Rise Up' Christian dance showcase took place on May 27 at the Marsee Auditorium. (Photo: Courtesy of Rise Up)

'What Is the Wisest, Most Helpful Way to Talk to My Child?'

On June 9 and 11, Oriental Mission Church (OMC) will be home to seminars hosted by a Korean American non-profit focusing on training parents how to converse with their children. From controlling anger, to wisely dealing with issues such as sex, experts in the field will share their insight with the Korean community.

The first seminar, taking place at 6:30 PM on Friday, will be focusing on anger management, with Hyunmi An, a licensed counselor who is on staff with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Parents will be able to learn how to correctly understand the sources

of their anger, and how to express it well to their children.

The second seminar, taking place at 1 PM on Sunday, will be focusing on parent-child conversations about sex. KFAM's licensed counselor Lauren Kwon will explain how to approach the topic according to the child's development stage, as well as some warning signs that are manifest in the child's behavior.

Both seminar sessions will include a Q&A session after the lecture. The church will also be providing child care for those who will be bringing their children to the seminars.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Talk to Your Parents:

Five Realizations that Changed My Perspective

BY SAM BAY

One of the biggest blessings from my last trip to Korea was having genuine conversations with my parents in a way that I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Now I know that for many Asian-Americans, our relationships with our parents are a sensitive subject, and I don't want to discount that reality at all.

At the same time, I can't help but feel like many of us subconsciously exclude our broken relationships with them when we gauge our spiritual maturity.

Yet, the Bible is clear in that we need to honor our parents, and I would argue that it is God's will for us to be good earthly sons and daughters so long as those titles apply to us.

So how did my paradigm shift? I had the simple but important realization that my parents are sinful humans just like me.

Growing up, I couldn't help but hold my parents to a higher standard of behavior and holiness, and this expectation that I had of them inevitably caused me to be upset and judge them. But after prayerfully asking God to change my heart, I applied life-changing realizations about my parents that are gradually shaping the way that I relate to them.

1. My parents get lonely.

I genuinely tried to put myself in my parents' shoes, and I couldn't help but feel empathy and a deep sense of emptiness on their behalf. My immigrant parents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put on a strong

face, but deep down inside, they struggled with loneliness for almost their entire lives.

2. My parents don't want to bother me.

This was such a heartbreaking realization for me. My parents believe wholeheartedly that I am living my life independently of them and that if they ever want to talk or interact with me, I might feel annoyed or bothered.

3. My parents have regrets.

For every time I thought to myself, "Why did they do this?" or "How could they do that?", my parents asked themselves the same question ten times as much. My parents aren't dumb.

There may be cultural and language barriers, but they are self-aware and feel the weight of mistakes that they made in life, especially as parents.

4. My parents don't need much.

My parents aren't wealthy.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would want if I were in their situations, but every time their birthday rolls around or Father's day and Mother's day approach, they never cease to say, "Don't give us anything." At the same time, my experience taught me that a simple card or a few words of love and encouragement can give them strength for the day.

5. My parents need grace.

I've yelled at my parents before, and I've definitely complained to them. I've made it clear how they have failed me before, and I've even shared with others about the many ways that I don't want to be like my parents.

What I can't remember are the

times when I, with a prayerful and genuine heart, simply showed grace to my parents. Times when I gave them space to be sinners. Times when I told them that God forgives them, and that I forgive them as well.

These five simple realizations are helping me to change my perspective on how I view and relate to my parents. My realizations and narrative may not be yours, but my genuine prayer is you would pause and intentionally take some time to humanize your parents.

They were never intended to be perfect and that's why even our own fallen parents should point us to our perfect heavenly Father who lovingly adopts us all — children of bad parents, single parents, divorced parents, no parents — into His family.

Now the great temptation is to procrastinate on repairing our relationships with our parents, but what pushed me to do it was realizing that my parents weren't getting any younger.

So I lovingly encourage you to simply talk to your parents. Ask them good questions. Give them the space to share their mistakes with you, and even if it's awkward or it doesn't turn out how you want it to, do it with a desire to honor them before God.

Pastor Sam Bay is the college pastor at Gospel Life Mission Church, located in Anaheim, CA.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Four Useful Ministries by Deacons

BY THOM RAINER

Deacons are a mystery in many churches.

In some churches, they act more like elders or a board of directors. Other churches attempt to focus their role on servant ministry, but there is confusion on how that should take place in churches.

We know more about the qualifications of deacons than we do the functions of deacons. Indeed, 1 Timothy 3:8-13 includes some of those very specific qualifications.

But what is a deacon supposed to do? For certain we know that the term "deacon" means servant. But how does a servant ministry manifest itself?

Perhaps we could look to Acts 6:1-7 as the origin or the forerunner of deacon ministry. If we believe that to be the case, deacons are to serve widows and maintain unity in the church.

But the Bible is not abundantly clear on how deacon roles should be carried out practically day-by-day. I have enjoyed interacting with hun-

dreds of pastors who have shared with me how their church's deacon ministry plays out. Here are four of the more common themes.

1. Pastoral care and ministry.

In this approach, deacons are an extension of the ministry of the pastor and staff. They visit the hospital. Some may counsel. And, in many churches, the idea of deacon family ministry grew from this expectation of deacons.

2. Maintaining unity in the church.

The seven men noted in Acts 6:1-7 were appointed in the midst of a conflict in the church. The servant role they assumed helped the widows in the church, and helped maintain unity in the church.

I am familiar with several churches where the deacons deal with critics, conflict, and bullies. They take that burden off the pastor and church staff.

3. Guest/first impression ministries.

In recent years, I have heard of more cases where some of the deacons serve the church by leading the

ministry to guests, often called first impressions. They, in a servant-like manner, represent the church hospitably to those who visit.

4. Security and protection.

It is becoming more common for churches to use some of their deacons as security personnel, especially during worship services. The deacons serve the church and the pastor by protecting them.

I know of at least one church that utilizes the deacon ministry in all four approaches. The deacons choose the area that best fits their gifts and passions.

How does your church handle its deacon ministry? I would love to get your stories and thought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May 31,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목회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기독일보 주최로 김상덕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그 길을 찾다” 모임에 남가주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목회를 하며 힘들고 낙심 되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김상덕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배우며 '행복한 목회'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니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 귀한 모임에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 한인소망교회 윤 목 목사



강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및 35년 목회

- 일시 : 6월 13일(화) 오전 10시 (점심식사 제공)
-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없음
- 문의 : (310)715-9902, (213)434-1170

*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s Religious Hospitals Exempt from Pension Law

Religiously affiliated hospitals, as well as other religious non-profit organizations,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of a federal pension law, the U.S.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d on Monday.

Known as *Advocate Health Care Network v. Stapleton*, the case involved whether three religiously affiliated hospitals must follow the same requirements under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of 1974 as other private corporations do. Employers have minimum funding requirements, among others, under ERISA.

Church pension plans are exempt from ERISA, and a portion in the law includes language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on Monday to mean that religiously affiliated organizations are also included in that exemption.

“A plan maintained by a principal-purpose organization qualifies as a ‘church plan,’ regardless of who established it,” the opinion written for the court by Justice Elena Kagan states.

ERISA states that a church plan that wa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a church also “includes a plan maintained” by outside organizations that are “controlled by or associated with a church,” which are also called principal-purpose organizations.

“That use of the word ‘include’ is not literal, but tells readers that a *different* type of plan should receive the same treatment (*i.e.*, an exemption) as the type described in the old definition,” the opinion states. “In other words, because Congress deemed the category of plan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a church’ to ‘include’ plans ‘maintained by’ principal-purpose organizations, those plans — and *all* of those plans — are exempt from ERISA’s require-



The Supreme Court ruled on Monday that religiously affiliated hospitals are exempt from federal pension laws. (Photo: Phil Roeder / Flickr / CC)

ments.”

Employees of Advocate and two other religiously affiliated hospitals (Saint Peter’s Healthcare System and Dignity Health) argued that the hospitals were essentially large organizations using their religious affiliation to opt out of the ERISA requirements.

“The decision avoids deciding whether large non-profit hospital systems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exemption,” said Karen Handorf, who represented the employees.

Justice Sonia Sotomayor expressed a similar concern in a separate opinion in which she said she agreed with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statute, but suggested Congress reconsider the current law.

Large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Dignity Health “bear little resemblance to those Congress considered when enacting the 1980 amendment to the church plan definition,” she wrote. “This current reality might prompt Congress to take a different path.”

Supporters of the hospitals celebrated the victory, saying that church activities are not limited to the church buildings themselves.

“Churches — not government bureaucrats and certainly not ambulance chasers — should decide whether hospitals are part of the church,” said Eric Rassbach, deputy general counsel at Becket, a law firm which filed an amicus brief supporting the hospitals.

“It is simple common sense that nuns, soup kitchens, homeless shelters, seminaries, nursing homes, and orphanages are a core part of the church and not an afterthought.”

If the Supreme Court had ruled in favor of the employees, the hospitals would have been required to pay up to billions of dollars in retroactive penalties.

Justice Neil Gorsuch did not take part in the decision, as the case was argued in March before he was confirmed to his position in the Supreme Court.

Violence Wrought by ISIS-Linked Militants in Philippines Leads to Death and Abduction of Christians, Reports Say

More than 170 have been killed, including Christians, in fighting between the Filipino government and extremist militants that have allied themselves with the Islamic State (IS) in a majority-Muslim island in the Philippines, since May 23, according to reports.

Instability and violence in the island of Mindanao, and particularly the city of Marawi, began when the extremist group, known as the Maute group, tried to capture a militant leader in the Philippines who is affiliated with the Islamic State, according to BBC News. Violence ensued when the Maute group’s attempt failed, and the group has been taking hostages, freeing prisoners, and carrying out attacks since.

In late May, the Maute group, which itself has also pledged allegiance to ISIS, is reported to have taken dozens of hostages from a church, and on May 23, eight Christians were shot and killed for refusing to recite the ‘shahada,’ the creed of the Islamic faith, according to Morning Star News.

A video that was released on May 30 showed that the Maute group kid-

napped a Catholic vicar-general, Rev. Teresito “Chito” Suganob, who appeared in the video pleading the government to stop bombing the city. Reports say that 13 other members of the St. Mary’s Cathedral were kidnapped along with Suganob.

“Mr. President [Rodrigo Duterte], we are in the midst of this war ... We are asking for your help to please give what they are asking for, to withdraw forces away from Lanao del Sur and Marawi City, and to stop the air attacks, and to stop the cannons,” Suganob was quoted as saying in the video by Morning Star News.

Since May 23, Duterte began enforcing martial law in the island of Mindanao.

Sidney Jones,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of Conflict in Jakarta, Indonesia, wrote in a New York Times op-ed that the government must be more strategic in fighting the growing extremist militancy in Mindanao.

“The Duterte administration’s response to Islamist extremism so far has been to try to crush it militarily,”

Jones wrote. “But too often strong-arm tactics only breed more fighters — and fighters with a desire for revenge. The Philippine government must instead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strategy to fix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that have led Islamic State ideologues to exert so much appeal in Mindanao.”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lives of hostages (among them a priest and 15 Catholics ...) since we do not know what their fate may be,” Edwin de la Pena, the Bishop of Marawi, told Fides Catholic news agency in an early June report.

“Now there are ongoing contacts and militants threaten to decapitate Fr. Chito. The hostages are their guarantee of survival. We hope that the militants decide to release them safe and sound,” he said.

According to reports, hundreds of thousands have fled the city since the violence broke out. However, BBC News reported on June 4 that some 2,000 are estimated to still be trapped in the city.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org



소리엘과 함께 하는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 콘서트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소리엘 장혁재
영동중앙교회 출석 (장로교 합동)
성결대학교 신학부 목회학과 M.Div
나사렛대학교 교수 / F신흥대학 교회실용음악과 교수
YWAM/FUNIVERSITYOFFNATIONS/FDTS/SWISS 로잔 1997
CCMF/MUSIC/FAWARD/2007, 2008/F대상
FEBFC/극동방송국 복음성가 대상
복음성가협회 최우수 가수상, F대상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장단멤버
굿네이버스 나눔 홍보대사

대표곡
아픔의 극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새벽이슬 같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는 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낮은 자의 하나님, 왜, 전부, 그날,
이런 교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7년 6월 9일(금) 오후 7:30
장소 : 샌디에고새소망교회(양진영 목사 시무)
문의 : T(858)299-5656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오후 7:30
장소 :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 시무)
문의 : T(818)549-9191



일정문의 : 877.499.9898 (한국어 2번)
굿네이버스 3505 Cadillac Ave M201, Costa Mesa, CA 92626

굿네이버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 | |
|-------------------|------------------|
| P.G.A Player Tour | (12~14살 1~2명 모집) |
| P.G.A Player Tour | (8~11살 1~2명 모집) |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 23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한 찬송 잔치를 엮습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봉사,마음,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매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6월 17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코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제),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Mیشن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J.C 의료 선교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을 먹어도 별 치료를

다해도 애를 먹이는 **고질병, 손목관절,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관절, 이명, 고혈압, 목 아픈 갑상선, 고혈압 환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30명 선착순 선교차원에서 무료 치료합니다.

- 국제 침술사 제임스 남



30명 선착순 무료 치료

열쇠 기술 속성반 모집

1년은 배워야 하는 과정이나

3개월 안에 연수, 졸업장, 자격증을 드립니다.

- 극히 작은 장소에서 영업 가능

- 극히 작은 자금으로 영업 가능

-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자영업

미국 학교에서 정식 연수한 최고 기술로써

40년간 경력에 있는 열쇠 세계 최고의 고수

김재홍 선생이 직접 전수합니다.



연락처 : T.(213)298-8384, T.(907)229-5575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A, CA 90019

성령강림과 성도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령강림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데 더욱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다.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전파와 기독교 부흥의 사명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 보인다. 성도가 주체적으로 세계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령의 임재를 예언, 통역, 병 고침과 같은 기적과 이사 등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고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성령님은 그저 명분으로만 존재하면 되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교회와 선교를 이끌어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사도행전을 돌아가 보자. 그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들이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뒤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와 선교의 힘이었고 복음의 흥왕의 비결이었던 것이다. 비록 수도 적고, 건물이나 조직이 형편없어 보였지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구원받은 자가 3,000명에 이르는 부흥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성과 현실에 기준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목적은 성령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함은 잊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악조건이 사라진 곳이 천국일까



정경 목사
샘물교회

한국에 김승진이라는 모험가가 있습니다. 그는 바람을 동력으로 삼는 요트 한 대를 구입하여 홀홀 단신으로 세계일주를 마친 사람인데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5대양을 횡단하는 중에 어떤 바다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데, 어떤 바다는 며칠 간이나 해가 뜨지 않고 삭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도대체 왜 그럴까?’ ‘정말 싫다’ ‘아름다운 그 바다가 그림다’를 반복하며 행복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마음 속에 ‘맛아. 이 바다는 원래 이 시기에 이런 바다이지. 그렇다면 이 바다를 즐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판에 나와 그 바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상하기 시작할 때, 그 바다만의 또 다른 깊은 맛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행복해지더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도 때로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주님, 제가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주님,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천국일 것 같아요. 주님, 이 병만 나으면요. 주님, 저 미운 사람만 없어야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조건들이 사라진 상태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해방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타락한 우리 영혼은 모든 걸 다 가져다 쥐도 이내 지옥의 불평거리, 내 인생이 불행한 100가지 조건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내 몸이 성전이 될 때 내 영혼은 나를 둘러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모든 환경들을 초월하는 천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풀어주십니다.

나를 둘러싼 악조건들을 물러가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히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독자 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이정희 전도사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씨앗이라고 표현한다(요일3:9). 왜냐하면 모든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 자신의 마음과 눈으로 보시기에 흠잡아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은 인간이 범죄를 하므로 세상은 어두워졌고 본래의 창조 모습인 아름다움에서 멀어져갔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성경에 표기를 했다(창6:6). 노아의 홍수 때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미래를 예견하셨고 그때 이미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범람한다. 어떻게 된 까닭인가.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지만 인간이 만든 다른 하나님이 많다는 소리다. 즉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많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유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말한 그분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심겨진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심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다.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화 되어 간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

씨앗이 중요하다. 씨앗은 땅에 심겨야 한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썩어 나고 꽃이 피고 자라며 열매가 맺어진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면 영이 자라나야 한다. 그 방법은 씨앗이 죽어야 잎이 나듯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렇게 자라나서 천국 사람의 모습이 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이 되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한다.

한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구원의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의 말씀에서처럼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이것을 성경은 씨앗으로 표현했다(눅8:11,벤전1:23).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 그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망, 대방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년맞이 패키지
 (대방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4행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사탕의 동산교회 \$140
 Standard 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팔짚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제1회 미용선교사 양성을 위한 헤어컷 아카데미 10주 코스

10주만에 미용사(헤어드레서)가 된다면.....
 선교지에서, 전도의 장에서, 봉사의 장에서, Job(잡)으로

당신도 10주만에 Hair Cut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아시아 대회 우승자 김인태 집사가 직접 남·여 헤어컷을 집중적으로 개인지도 합니다.

과목 : 단발, 이사도라, 스파니엘, 중간 레이어 컷, 롱레이어 컷, 숏트 컷, 남성 컷, 샹기 컷, 상고 컷, 스포츠형 컷, 유행 컷 등...

회비 : \$500(\$200불 상당 미용키트 포함) 가위 2개, 크리퍼, 레저컷 용, 마네킹, 꽃이, 빗, 스프레이 등

디플로마 증정 *간단한 다과, 음료, 파킹

• 일시 : 6월 29일(목) 오후 7:00 ~ 9:00
 •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등록 및 문의 : T.(213) 434-1170, (213)739-0403
 • 선착순 모집 : 10명
 • 주최 : 기독교일보

강사 김인태 집사(나성순복음교회)
 전 국가대표(86년) 아시아 대회 우승자
 현 세미나 강사
 팔레스티나 미용대학 초청강사
 Queenstone Colleague 강사

신간 도서

분단과 여성

조진성 | 새물결플러스 | 332쪽

남북통일은 한반도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 줄까? 책은 통일 독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가의 역사적 전환기에 여성의 사회적 권익과 삶의 질은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준비 없는 통일은 여성의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키기에, 그 준비 과정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포함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추천 도서

기독교인들, 사회적 의견 표현한 만큼 실천하나?

군부정권이 아직 기승을 부릴 때, 기독교 청년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참여론이 그에 맞는 커다란 대응의 하나로서 위치를 차지했다. 그에 관련된 책들이 북을 이루고 번역되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우리나라 정치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서구 민주주의 토대에서 나왔기에,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자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 중에도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실제적 방법론으로 활용되기에는 많은 한계성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문민정부, 민주정부의 출현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점차 시들해지고,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된 듯해 보인다. 하지만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에 대한 사회의 강한 혐오와 거부로 인해, 최근 몇 년 전부터 세상에 대한 신앙의 책임성이 다시 강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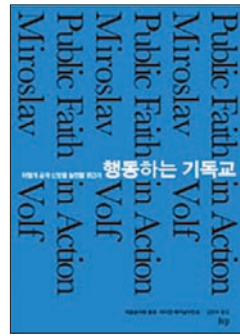
이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 용어에서 나타나듯,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 정도로 그치기에, 시초부터 그것을 실천하고 실제화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책의 저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에 관련된 실천적 논리와 방안들을 여러 저술들을 통해 제시해 왔다. 전작인 <광장에 선 기독교>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그 책에서 기독교 세상에서의 기능장에 원인과 극복, 실천성을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그 책은 거기서 멈췄다.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며 신앙인 개인의 신앙을 넘어선 공적 신앙의 책임성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쉬웠고 미진해 보였다. 그런데 얼마 전 나온 <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는 전작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1부에서 공적 신앙은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2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개인적이거나 사회의 커다란 영역이나 이슈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보여준다.

기존 책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이원론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읽어 나갈지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면, 저자는 이제 각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행동하는 기독교 미로슬라브 볼프 라이언 매커널리린츠 김명희 역 | IMP | 362쪽

지, 구체적이고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린다. 어떤 영역은 개인이 품기에 상당히 큰 주제들도 있지만, 어떤 주제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예민하고 실제적인 민감한 이슈들도 있다.

이러한 접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시야가 지나치게 개인화되거나 큰 그림만 보면서 개인의 삶에서는 세상에 종속된 이원성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장점 때문이다. 어떤 때는 환경이나 교육, 일과 인식 같은 큰 그림을 보여준다면, 대출과 건강 같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때, 독자들이 저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과 대안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또 다른 고민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장이 될 것이고, 저자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비록 미흡하거나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저자의 전작에 대한 실천편 같은 모습을 지닌다. 이 책의 시작이 저자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담았던 일련의 글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이 책은 현재형이고 또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행성은 저자의 몫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을 고민하는 실천성과 고민이 진행되고 대안이 나와야 한다. 비록 그 대안이 미흡하고 한계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고민과 대안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대안과 연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각 장마다 참고도서, 특히 저자에 의한-아마도-참고자료로 제시된 책들

은, 이 책을 읽은 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심화시킬 길과 자료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하다. 그중의 몇몇 예를 든다면, 이미 이 방면의 고전인 존 스토틀의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지금도 중요한 도서가 될 것이다. 또 '회복적 정의'에 관련된 책들은 특정한 영역이고 아직은 크게 관심 갖지는 못하고 있지만, 단순한 징벌적 사법체계를 넘어 회복과 치유의 사법체계가 그 인식을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처럼 책은 독자들에게 각 영역을 세부화하고, 그 영역에 맞는 공적 신앙을 연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2부에서 그치지 않고, 3부를 통해 이제 그러한 공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기 위해 가져야 할 성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낸다. 이를 통해 이러한 공적 신앙이 단순한 주장이나 행동의 표피를 넘어, 우리의 전 인격과 신앙으로 행해야 할 내적 힘을 지녀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당당한 듯 싶고, 사회의 각 영역에서 활동한다. 교회 문제와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의 리더로서 발언하건 개인으로서 SNS 등을 통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건 간에, 여러 형태로 말하는 이들은 많다. 하지만 정작 그 발언을 할 만큼 또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을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격 살인이나 모독을 하면서 그 대상을 치유하는 주께로 이끌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비기독교인 같은 자세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특히 비판은 하지만, 자신이 비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이 비판한 이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이중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한 모습은 그가 비판하는 일에 대한 책임성의 결여와 그것을 감당할 영성과 성품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3부에서 성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필요하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들은 유익하다. 앞서 말했듯 비록 아직 진행형이고 수정되거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적용해 나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숙제일 것이다.

문양호 목사(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말: 바른 고백과 잘못된 고백

E. W. 케넬, 돈 고셋 | 베다니 | 256쪽

영려 대신 믿음을 세우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바른 기도 방법과 잘못된 기도 방법 등 승리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저자인 케넬 박사(1867-1948)



는 20년 이상 전도자로 사역했으며, 베델 성경학원을 통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켰다. 또 한 명의 저자인 돈 고셋(1929-2014)도 10대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60년 이상 전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유대인의 탈무드 경전

마빈 토카이어 | 박안석 편역 | 빅북 | 320쪽

유대교의 랍비인 마빈 토카이어가 첫째 교육에 대한 집념, 둘째 권위에 대한 도전 정신, 셋째 낙관적인 불굴의 의지, 넷째 주체성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두어 재해석한 탈무드 해설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유대인들의 지혜로우면서도 슬기로운 처세술을 만끽할 수 있다. 유대인의 율법에 관해 1,200년 동안 랍비들이 토론하고 재해석한 방대한 내용을 10년에 걸쳐 2,000명의 랍비들이 정리한 것이다.



미술 서양화 3개월 특수반

초보라도 3개월 연수하면 최소 100불 상당의 그림을 시장에 팔아도 잘 팔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수업시간 : 매주 2시간 * 수강료 : 매달 \$200불 (재료비 포함) * 국제 상도 받은 40년의 경력 * www.amazon.com 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서양화가 James Nam Suk Hoon!!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매편: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 재배 가능

남석훈 예술의 집

(기타, 피아노, 드럼 3개월 속성반 모집)

이봉조 악단에서부터 수 십년의 재즈 밴드로 활약하며 얻은 많은 경험의 노하우로 초보자도 3개월, 1주에 1시간 이면 복음성가, 찬송가의 훌륭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로텍스 호텔 근처)

수강료 : 월 \$120



한민족 선교회

(One Korea Mission)

무력으로 통일을 하느냐 기독교 정신으로 평화 통일을 하느냐 평화통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평신도의 간증이 있으시면 간증 부탁 드립니다.

한민족 선교회(One Korea Mission)

매주 주일 저녁 7시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장소 : 751 S.Crenshaw Blvd, L.A, CA 90005(LA광명교회) 시간 : 매주 주일 저녁 7시 문의 : (907)229-5575 에스더 남 선교사 (213)298-8384 음악목사 남석훈



미주 통일 연구원 한민족 연합회

총재 : 남 석 훈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